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오찬간담회

□ 모두말씀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당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초청하는 사람도 초청받는 사람도 약간 서먹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 말고 또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대체로 지금 한국사회가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지역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갖고 갈등이 좀 있다. 그 다음에는 흔히 말하기를 세대간 갈등이 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심하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성장해왔고, 세계질서도 제국주의시대에서 국가주의, 새로운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날 세대간 갈등이 되고, 부자간에, 모녀간에 서로 다르게 투표하고 집안에서 논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자율과 창의 그리고 책임 ... 분권적 사회로 가자

그런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선이 하나가 있다. 분권과 집권이다. 모든 권력, 돈, 사람을 중앙이 다 빨아들이는 중앙집권의 사회체제가

있고, 되도록이면 분권해서 여러 단위에서 각기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해서 스스로 발전을 꾀하고 책임을 지는 분권적 사회가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 얘기할 때 바닥에 깔아야 할 주제는 분권의 사회냐, 집권의 사회냐, 이런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크게 좁혀지면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논점이나 초점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세대간, 지역간 또는 성장과 분배간의 전략의 차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분권의 전략을 다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분권은 민주주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분권은 민주주의 출발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참여정부 국정개혁과제의 아주 높은 순위로 놓고 있다. 1순위라고 할 만큼 아주 강조해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민주주의’ 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도 분권과 자율로부터 시작한다. 국정목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분권과 자율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4대 국정원리 중 하나가 분권과 자율이다. 두 단어만 써야 돼서 책임을 달지 않았으나, ‘자율과 분권, 그리고 책임’, 이것을 4대원리 중에 강조하고 있다.

분권이 되면, 갈라지면 통합하는 구심이 있어야 한다. 그 구심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대화와 타협의 원리로 이끌어가야 한다. 통합의 문화와 정신, 아울러 그래서 분권과 자율,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 이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내 권한을 갖고 추진하지만 실제 있어서 여러분 역할이 크다. 여러분이 반대하거나 또는 긴가민가해서 멀찌감치 쳐다보고, 냉소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여러분에게 그 뜻을 설명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목표가 그럴만하다면 함께 해보자는 강한 제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뜻이 있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점심을 드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 마무리 말씀

93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어 함께 연구도 하고 토론토 했다. 그때부터 확고하게 갖고 있는 정책방향이 분권이고 자치권 확대였다.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해볼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한 번 해보려고 한다. (일동 박수)

사실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선거 때 공약하기를 지방화시대로 간다, 기술혁신, 경제구조의 개혁, 일반적인 관행과 의식을 개혁하고 사회문화의 혁신을 내걸었다. 아울러 동북아시대를 주장했다. 그리고 말이 쉽지 지방화라는 것이 잘 안 된다.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는데, 한 사회의 권력이 근본적으로 이동하는데 12년을 갖고는 택도 없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의 기득권이 대단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공무원이 하는 조그만 일이라도 못하게 하면 벌떼처럼 반대하고, 비슷한 일을 만들어서 자리를 확보해나가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하물며 중앙정부는 막강한 조직이다. 전통적으로 학문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도 소위 정부 조

직을 바꾸고, 일을 바꾸는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책에서 써놓고 있다. 실패한 일이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려고 한다.

개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다

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장을 맡아줬던 김병준 교수가 선거 때 또 여러 가지 정책과 좋은 일을 맡아줬다. 실제로 내가 읽은 여러 책이 있지만 지방자치 영역에서 최고의 책을 쓴 분이 아닌가 한다. 그냥 영미나 유럽의 이론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모든 자료조사를 해서 쓴 책이어서 딱딱 (느낌이) 온다. 전체적으로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포괄해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나 자치영역의 전문가여서 분권영역이 알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손발이 잘 맞고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재정분권을 걱정하는데, 얼마 전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이를 제가 고쳐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새로 해달라고 했다. 철저히 않아 퇴짜를 댔다. 내가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분권운동을 하는 학자들이 여러 연구들을 가져왔는데, 쪽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덮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 지금 체제가 더 이상 분권화가 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씩 해달라는 요구였다. 감나무에서 감 하나씩 달라는 식이었다. 내 마음 속으로 ‘나무를 통째로 뽑아 옮길텐데’, ‘제대로 봅시다’ 했다.

나무를 통째로 뽑아 옮기는 개혁으로 ...

대통령 의지가 실무에서 얼마만큼 구현되느냐가 관심사이다. 계획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항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됐을 때 모두 깜짝 놀랐다. 저 사람이 감이 되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또 무슨 파격인사냐 했다. 파격 맞다. 근본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자. 옛날 식

으로 ‘기초단체장 하는 사람이 감이 되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항상 중앙무대에서 증명한 사람만이 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역량을 쌓고 검증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 증명하고 싶었다. 자치단체 출신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또 자기가 자치단체장을 해봤으니까 분권은 양심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켰다.

아마 공무원 사회와 상당한 갈등 있을 것이다. 그러나 5년 동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차츰 공무원들도 새롭게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회의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고 ‘된다’는 믿음을 가져달라.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정부에서는 ‘한다’, ‘된다’는 믿음을 가져달라. 사실 많은 일들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밀어붙이지 않아 될까말까 하다가 주저앉은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분권 - 한다, 된다, 믿음을 가져 달라

또 저 좀 도와달라. 일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 때문에 분권의 판이 깨지겠다는 걱정이 들 때가 있다.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다 해놓으라고 한다. 지방재정에 관해서 지금 현재 지방이 55%를, 중앙이 45%를 쓰고 있다. 중앙의 45%도 많은 부분이 지방으로 가지만 일단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55%, 중앙이 집행하는 것이 45%이다. 이 55%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의 자율권이 너무 제약돼 있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돈을 준다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 55%의 범위 안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있고, 55%의 양을 늘리는 것이 있다. 계산만 잡아내는 데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분류하고 해서 자율권 높이는 것과 전체 금액을 늘리는 것은 계산하기는 복잡하다. 그러나 크게 서로 의견들이 갈려서 싸움이 나버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헤맬 수 있다. 나로서

는 1차로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하겠다. 여러분이 여유를 갖고 도와주면 좋겠다.

공무원이 이를 내놓고 싶겠느냐? 그렇다고 무작정 연필로 쪽 그어 가지고 여기까지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 넘기면 안 되느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왜 당신들이 결정해야 하느냐,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냐 등등 다 토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1단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도와달라. 그것이 규모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다, 때려치워라 하고 중앙에 계속 그것만 요구하면 관련법 개정할 때 입법과정에서 토론이 끝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분권팀과 지방의 의견이 상호조율돼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면 분권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규모를 늘리겠다

어려운 질문들을 받았다. 유급화 또는 보수현실화에 관한 문제인데, 내년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다. 세외 수입이 작년도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댄에는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 헤드테이블에서 그 얘기를 잘못하면 걸어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대충 보고 아침에 대강 사인하고 왔는데, 다시 고쳐야 하나 머리가 복잡하다. 내 댄에는 성의를 다했는데 난감하다. 행자부장관이 예산처장관과 싸우고 싸워서 쟁취한 것인데, 한 번 노력해보겠다.

그 다음은 대통령직에 관한 문제인데, 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제가 칭찬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이냐, 이거 아니겠는가. 그 점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감히 큰소리하겠다. 나라는 제대로 가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정치제도, 제대로 된 행정,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우리 사회문화, 기업문화 등 지금보다 훨씬 더 자리 잡아 간다.

그리고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인데, 잘 하겠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경제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다. 불안하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달라. 외교, 제대로 한 것이냐? 아직 어렵지만 6개월 동안 잘못된 것이 있나? 그렇게 공격받은 것 치고는 너무 탈이 없는 것 아니냐. 결과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는 영어도 못한다. 미국도 처음 갔다. 그렇지만 미국 가서 잘못된 것 없지 않나.

지금까지 봤을 때 인기에 연연한 일 없고,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한 적 없다. 소신 하나로 왔다. 정치 10단, 9단, 8단 해도 꺾이지 않고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왔다. 운이 좋았다. 그러나 한 순간 결단에는 어떤 정치인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제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안기부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검찰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대통령 문화도 바뀌어야 하고, 언론, 바뀌어야 한다. 언론은, 적당하게 지내지 않는 대통령일 뿐이다. 관계 정상화다. 지금까지 정권과 언론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일이 있나? 소위 야합의 관계였다. 그것을 고치자는 것이다. 언론 탄압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5년 뒤에는 취재와 보도의 관행이 선진국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취재하는 사람들 눈치 살피고, 어떻게든 비위 맞추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하고, 자존심 상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당당하게 원칙을 갖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내 소망이다.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울 일 없다. 이를테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와 싸우겠느냐. 질서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조금 대통령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냉정하게 실제적 근거를 갖고 판단해달라.

여러분에게는 꼭 내 약속을 지킨다. 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은 권한이 내려가도 기업이 내려가지 않으면 돈이 없다. 지방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방대학을 잘 이용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관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기업이 지역과 관계를 잘 맺으면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률이 높아지고, 기업의 기술력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높아진다. 이제 지방의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주저했고, 수도권의 집값이 비싸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도 좋고 일자리도 있으니 지방으로 갈 것이다. 특정예산을 갖고, 교육분야의 예산이든, 복지분야의 예산이든, 또는 R&D 예산이든 - 하나 하나가 전부 지방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분권, 이 약속은 지킨다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는데 해보니까 지방에서 돈 달라고 하는 계획서가 올라와야 하고, 이런 것을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사업이 구체화돼야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못했다. 하반기에 가서는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짜고 2004년에는 R&D 예산을 늘려놓고 지방으로 가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균형발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문제는 성경룡 위원장이 잘 설명했다. 어떻든 지방이 어려우므로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규제 때문에 수도권까지 골병들지 않도록 하겠다. 지방에 도움 안 되는 규제는 풀겠다. 아주 다급한 것은 한 두개 손대겠지만,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풀어야 한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아주 화급한 것만 푸는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현명한 주인은 소를 잘 먹인다. 머슴을 부릴 때 지게 지고 가는데, “왜 많이 안 지고 가냐”고 작대기로 때리고 하지 않는다. 머슴을 잘 부리는 것은 첫째 신뢰하는 것, 둘째 자발적으로 일할 맛이 나게 해줄 것, 세 번째는 잘 먹여야 한다. 국민이 여러분께 대우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일은 시키고 의심은 많이 하면서 차비는 잘 주지 않는 상태로 있다. 숙명이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숙명이다. 여러분의 작은 자리도 소명이니 까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따질 것이 많고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것 많은데,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그냥 뚜벅뚜벅 소명으로 생각하고 일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자치와 분권은 한 대 때리려고 하다가도 생각 한번 해 보고 힘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